

# 울릉도 달군 회당문화축제

## 8월 1일까지 종조탄생 1백주년 기념행사 다채

8월 1일 밤 경북 울릉군 울릉읍 저동항. 인기 밴드 노브레인의 터질듯한 선창에 1천여 관객이 자리에서 일어나 손뼉 치며 가볍게 몸을 흔든다. 진각종이 매년 7월말~8월초에 마련하는 '2012 회당문화축제' 중 '독도 아리랑 콘서트' 현장이다.

이 축제는 진각종이 종조인 회당 대종사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탄생 1백주년 기념 사업으로 기획된 것으로 2001년부터 첫 선을 보인 이래 올해 12회를 맞고 있다.



7월 30일~8월 1일까지 열린 울릉도 회당문화축제에는 1천여명이 동참했다.

독도 콘서트 1천여명 관람  
풍등띄우기, 풍물공연 등 풍성

올해 축제는 경북 울릉군 울릉읍 일원서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펼쳐졌다.

7월 31일 도동항 특설무대에서 열린 전야제와 울릉도 주재 군장병 및 전의경력을 초청해 울릉한마음회관에서 열린 동해지킴이 위문콘서트로 이번 축제는 시작했다. 이어 본 공연은 8월 1일 저동 특설무대에서 열린 독도아리랑콘서트다. 독도아리랑콘서트는 서예가 권상호씨가 라이브퍼포먼스로 '진호국가'와 '독도아리랑' 번을 쓰는 것으로 문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진각종 통리원장 혜정 정사는 군부대와 울릉군청년단, 울릉태권도협회에 지원금을 전달하며 "동쪽은 해가 뜨는 곳인 만큼 평화 통일도 바로 이곳에서 시작되기를 바란다"며 "나라를 보호하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진압해서 평화로운 세계를 만드는 진각종의 진호국가불사 정신은 바로 장종조의 큰 뜻이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독도에 이렇게 한국령이라는 글씨가 있고 태극기가 휘날리는데도 일본은 그걸 무시하고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다"며 "동도 쪽에 50년도 넘는 포(浦)가 있는데, 그걸 우리나라 문화유산으로 등재한다면 독도가 한국땅임을 인정받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행사의 백미는 역시 행사 마지막 날 열린 '독도 아리랑 콘서트'였다. 동덕여대 실용음악과 학생들의 무대로 문을 연 이날 공연에서는 퓨전 국악 그룹 '프로젝트 락(樂)', 비보잉팀 '플라임 코리아', 바리톤 유훈석 등이 개성 있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공연의 대미는 노브레인이 장식했다. 히트곡 '미친 듯 놀자'를 부르며 등장한 노브레인은 특유의 에너지 넘치는 편곡으로 '팡팡팡' '섬마을 선생님' 등 다양한 레퍼토리를 선보이며 관객들을 즐겁게 했다.

울릉주민 김정숙씨(45)는 "울릉도는 지역 특성상 섬이라 인기 연예인들의 공연을 자주 보기 힘든 곳"이라며 "모처럼 많은 관객들과 흥겹게 춤을 추며 노래를 들으니 더위가 싸서진다"고 발을 동동 구르며 즐거워했다.

이외에도 이번 행사에서는 국악관현악·대중음악·풍물공연·팝오케스트라 등의 공연과 독도사진전·독도사랑캠페인·풍등띄우기·불꽃놀이, 체험프로그램 등이 펼쳐졌다.

김주일 기자

시로 읽는 성보순례

국보 제57호 쌍봉사 철감선사탑



### 철감선사가 살아 있다

강경호

통일신라 적

불심 깊은 사람, 철감선사 막도운이

아직도 증조산에 살아 있다

경전 같은 집 한 채가 되어

쌍봉사 뒷결에서 법문을 외우고 있다

선사가 외우는 법주경이거나 천수경이

바람이었다가 햇빛이었다가

때로는 달빛이었다가, 눈비였다가

밤마다 어둠이었다가

오늘은 내게 멧찍은 이야기 하나 들려주는데

일케 때 사리장치를 훑쳐가기 위해

어느 몫쓸 늪이 철감선사를 쓰러뜨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시 일어난 선사,

머리의 옥개석 몇 조각 도둑에게 취버렸지만

떡 주무르듯 빛은 신라 최고의 걸작이 눈부시다,

눈부시다, 세월이 지날수록 상처투성이지만

그 상처에 배인 1200년 전 선사의 뜨거운 마음

얼음처럼 눈을 부릅뜨고 있다

〈국보사랑 시집-불멸이여 순결한 가슴이여〉 중에서

강경호 시인은... 1997년 〈현대시학〉으로 등단. 시집 〈함부로 성호를 갖다〉와 평론집 〈휴머니즘의 구원의 미학〉

## '사랑의교회 신축공사' 결국 법정으로

### 서초구 '市 공사중단 감사' 불복... 주민들 행정소송

서울 서초구가 서초동 사랑의교회 신축과 관련해 일부 공사 중단을 요구한 서울시의 감사 결과에 불복, 향후 법원의 판단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놨다. 이에 따라 사랑의교회 신축공사를 둘러싼 논란은 법정에서 판가를 날 전망이다.

서초구는 "주민소송과 관련된 법원의 최종판결 내용을 감안해 처리할 계획"이라는 내용의 '서울시 주민감사 결과에 대한 조치 결과'를 2일 밝혔다. 공사 허가에 관련된 공무원 2명에 대한 서울시의 훈계 요구에 대해서도 "향후 예상되는 소송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며 받아들이지 않

겠다는 뜻을 분명히 나타냈다.

구는 공고문에서 "현재 지하 부분 골조공사가 80% 진행된 상태이므로 처분 상대방(사랑의교회)이 입지지 모르는 예측할 수 없는 손해와 행정청의 처분 상대방에 대한 신뢰보호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밝혔다.

감사를 청구했던 주민들은 이에 따라 조만간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행정소송은 지자체가 감사 결과에 불복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주민들은 다만 직권으로 시정 명령을 내릴 권한이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의 면담

뒤로 소 제기를 미룬다는 입장이다. 지방자치법 제169조는 지자체 장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면 주무부 장관이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장의 명령에도 구가 불복하면 곧바로 대법원의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 6월1일 사랑의교회에 대한 구의 도로점용허가는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골조공사 등 상당한 공사가 진행되어 배상이나 재설계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위법한 도로점용허가 처분을 용인할 수 없다"며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다.

신종일 기자

## 현대적 청구 제정 시작부터 '흔들'

### 1차 회의서 위원장선출 의견 차

조계종 제1차 쇄신계획 중 현대적 청구 제정을 담당할 위원들이 위축됐다. 하지만 위원장 선출은 논란 끝에 선출하지 못했다.

조계종 청구제정위원회는 7월 30일 비공개로 1차 회의를 열고 위원 위촉했다. 이날 위촉된 청구위원회에는 동화사 주지 성문스님, 종회의원 주경스님, 결사본부 사무총장 원명스님, 선원수좌회 복지분과위원장 강철스님, 선원수좌회 학술위원장 월안스님, 통도사 율원장 덕문스님, 선운사 불학승가대학원장 재연스님, 교육원 교육부장 법인스님, 비구니회 운영위 수석부위원장 계호스님, 운문사 승가대학 강사 일진스님 등 10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장 선출과 청구제정 방향 설정, 운영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위원장 선출에서 위원 간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 간 이견에 대해 결사추진본부 관계자는 "내부회의라 공개가 어렵다"고 밝혔다.

신종일 기자

## "비구니 참종권 확대, 아직은 시기상조"

### 본사주지협, 22차 회의서

현재 산중총회에서 비구니 참종권은 말사 주지 자격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이를 확대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나왔다.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협의회(회장 원행, 이하 교구본사주지협)는 7월 27일 제25교구본사 본선사에서 제22차 회의를 갖고 '산중총회법', '교구총회법' 개정안 등 종단 현안에 관한 건을 논의하고 이 같이 결의했다.

교구본사주지협은 본사 주지 선출을 선거를 통하지 않고 산중고유의 방식, 또는 추대 방식으로 '산중총회법'이 개정된다면 굳이 구성원을 확대하지 않아도 되며, 현재 말사 주지인 비구니가 산중총회 구성원으로 참여해 선거권을 행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총무원에서는 재무부장 김갑스님이 참석해 원로회의 결과 및 중앙총회 의장단 간담회 의견을 전달했으며, 자정과쇄신결사추진본부 사무처장 원명스님이 선거법 개정 및 청구제정과 관련한 하반기 계획을 설명했다.

신종일 기자

중의대 침 세계 1위 대학, 세계 100위 대학 남경중의학대학

# 중국 국립 한의과대학 특차 모집

### 1. 특차모집

| 학과          | 학제   | 모집인원 |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
|-------------|------|------|---|
| 한의학과        | 5년   | 40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종학력증명-1부</li> <li>최종성적증명-1부</li> <li>입학신청서-1부</li> <li>여권용사진-10매</li> </ul> |
| 석사과정        | 3년   | 10명  |   |
| 박사과정        | 3년   | 10명  |   |
| 남경대학        | 4년   | 40명  |   |
| 남경부속 중·고등학교 | 각 3년 | 40명  |   |
| 재경대학        | 4년   | 80명  | - 법학, 경제, 경영, 무역, 식품, 금융 등  |

### 2. 학교소개

-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한의과대학
- ▶ WTO 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 부속병원3, 제약공장, 교육병원12, 제약연구소 등 원비
-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한국식사 제공
- ▶ 군입대 연기가능
-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수 상주하여 학사 관리
- ▶ 학자금 대출가능
- ▶ 서울시내 대학 편입가능
- ▶ 직업의사(국제중의사) 자격 취득자는 한국에서 의사로서 의료활동 가능

### 3. 지원자격

- ▶ 최종학력졸업증명서
- ▶ 주시스님 추천자
- ▶ 합격자 전원 중국대학에서 수업 남경중의학대학 전원기숙

### 4. 원서 교부 및 전형방법

-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 전형제외 : 색명, 색약, 유전(전염병)

※모집기간 : 2012년도 8월 28일까지

### 5. 문의처

- ☎ 전화 : 011-472-2782(직통)
- ☎ 팩스 : (02)511-2028
- ◎ 한국상담 안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 전화 : (02)511-2026~7, (02)511-1080
- 팩스 : (02)511-2028
- http : //www.njutcm.co.kr
- ※ 입학원서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주소 : 中國 南京 亞凍 仙林大學校 南京中醫大學

한국 총장 혜인



남경중의학대학 (南京中醫學大學)